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제 1723호 | **대학주보**

이슈

경희인의 함성으로 가득찼던 서울캠 봄 대동제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캠 봄 대동제 'MASTERPEACE :Highlight'가 개최됐다. 이번 축제의 부제 'Highlight'에는 캠퍼스에서 경험하게 될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며, 그 순간들이 삶에 활력과기쁨을 더해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학생이 만들어 나간 축제현장으로 들어가 봤다.

1일차: 함성으로 시작된 축제

4개 단과대 풍물패 문과대 '다스름', 이과대 '한얼', 정경대 '두레', 한의과대 '어울'이 연합해 축제 서막을 신명 나게 열었다.

꽹과리, 징, 북, 장구, 소고, 채상 등의 악기로 판굿 무대를 보여줬다. 풍물굿패연합장 정은비(국어국문 학 2022) 씨는 "공연을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열심히 연습한 만큼 즐 겁게 공연한 것 같아서 좋다"는 소 감을 전했다. "다만 차량통제와 관 련해 학교와 협의했는데, 생각보다 많았던 차량 통행으로 공연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네오누리관에서는 '유학생과 함께하는 담금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가 열려 과일, 꽃, 허브, 약재로 만든 전통 담금주를 현대식으로 변형해 취향에 맞는 담금주를 제작했다. 김은율(문화엔터테인먼트학2024) 씨는 "유학생과 함께한다는 점이흥미로워서 신청했다"며 "축제 부스 참여 자체가 처음인데 재밌었다"고 말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블루벨 △못

말리는 아가씨들 △발라드림 △아 드레날린 △NAKED 총 6팀의 재학 생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노천 극장을 뜨겁게 달궜다. NAKED 회장 장준혁(경영학 2022) 씨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캠 제56대 경희대학교 응원 단과 국제캠 응원단 컬스라는 '제1 회 설국합동응원전'을 열었다. 서울 캠과 국제캠 학생은 서로 어깨동무 를 나누며 캠퍼스를 뛰어넘어 하나 의 경희를 만들어냈다.

응원전에 참여했던 양세빈(국어 국문학 2021) 씨는 "설국 합동 무대 라 그런지 무대 구성이 더욱 알차고 웅장했던 것 같다"며 "함께 응원가 를 따라 부르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응원단은 "학우분들 께서 같이 노래를 떼창해 주시고, 어깨동무하며 저희와 뛰어주신 덕 분에 응원하면서 동시에 응원받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2일차: 이어지는 열기

노천극장 스탠딩 존에서 '쿠옹이 검거 대작전'이 진행됐다.

사전 모집을 통해 모인 참가자는 4가지 미니 게임을 통해 단서를 획 득하며 범인 쿠옹이를 검거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단서를 찾으며 추리에 푹 빠졌던 오윤서(생물학 2024) 씨는 "콘텐츠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시간을 알차게 쓴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연합 학술동아리 UNSA 경희지 회는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교시탑 앞에서 진행된 판굿

(사진=경희풍물굿패연합장 제공)



양캠 응원단의 합동 무디

(사진=이지수 기자



1일차 NAKED 재학생 밴드 공연

(사전=이지수 기계



사진동아리 KHPC 학생 참여 부스

(사진=정유현 기자)

실천하기 위해 환경 보존을 위한 부스를 운영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학생에게 아이스티를 담아줬다. 또한 퀴즈를 맞힌 학생에게 선물을 줬다.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 캠페인도 진행해 판매한 섬유유연제와 세탁세제를 학생이 가져온 용기에 담아줬다.

1일 차에 이어 Δ노래여울 Δ루시드 Δ일 렉트릭스 ΔΚΗURUSH Δ텐데이즈 Δ하이 헬로 Δ동트는새벽 Δ허송세월 Δ언니믿고 따라와 Δ래비보벳따우 10팀의 재학생이 더위를 물리치는 시원한 공연을 선보였다. 송지영(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2) 씨는 "국제캠에 재학 중이라 서울캠 축제에 온 것은처음인데, 재학생 밴드부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3일차: 저물어가는 'Highlight'

스페이스 21관 앞에서 총학이 운영하는 'Highlight' 부스가 학생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부스에서는 Δ 타투 스티커 Δ 선캐쳐 제작 Δ 상자 게임 Δ 제비뽑기 게임 Δ 미니 볼링 게임이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휘장, 쿠옹이, 웃는 사자, 목련을 타투로 새기는 스티커 부스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또한 미니 게임에 참여해 스탬프 3개를 모두 모으면 경희랜드 놀이기구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사진 동아리 KHPC의 부스에서는 부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와 필름 열쇠고리를 제작해 판매했다.

KHPC 회장 정소현(식품영양학 2022) 씨는 "동아리원이 출사를 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과 열쇠고리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 활동에 애정을 가지도록 했고, 동아리 홍보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며 "부스 운영을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막상 참여해 부원들이즐기는 걸 보니 오히려 더 보람찼다"는 소감을 전했다.



